

2024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고린도 후서

메시지 8

믿음의 영에 의해 말함

성경: 고후 4:10-13, 롬 10:14, 17, 고전 6:17

- I.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고후 4:13.
- A.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영에 의해 말할 때, 실지적인 생활이 크고도 중요한 중점이다.
 - B. ‘믿음의 영’이라는 구에서 ‘믿음’과 ‘영’은 동격이다—13 절
 1.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영은 믿음이다.
 2.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그것에 의해 말하는 영이 된다—갈 3:2, 8.
 3. 믿음의 영에 의해 우리는 말씀을 말할 수 있다.
 - C. 믿음의 근원은 말씀이다—롬 10:17.
 1.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수록 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이 영이다.
 2. 여기에 이러한 순환이 있다. 말씀은 믿음을 산출하고, 믿음은 영을 산출하며, 이 영에 의해 우리는 말씀을 말한다—롬 10:6, 8.
 3.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온다. 이것은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임을 암시한다—롬 10:14, 17.
 4. 이러한 영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인 말씀을 말할 수 있다—고후 4:13, 롬 10:14, 17.
 - D. 믿음의 영은 우리의 영과 성령의 연합이다—고전 6:17.
 1. 성령과 사람의 영의 섞임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연합된 영이라고 부른다—롬 8:4-6
 2. 신약의 본질은 두 영, 즉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다—고전 6:17, 롬 8:4.
 3. ‘한 영’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영과 그 영이신 주님의 연합을 가리킨다—고전 6:17, 15:45, 딤후 4:22 상.
 4.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연합된 영, 즉 사람의 영과 신성한 영의 연합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거나 성취하시려고 의도한 것은 무엇이든 이 초점과 연관된다—엡 3:9, 5, 1:17, 2:22, 4:23, 5:18, 6:18.
 5.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두 영의 연결이다(고전 2:11-14). 이 두 영의 연결이 성경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비밀이다.
 6. 우리의 믿음은 연합된 영이다. 우리는 믿음의 연합된 영을 갖고 있다.
 7.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즉 연합된 영에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한다—롬 8:4.
 - a. 모든 것의 열쇠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며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신 놀라우신 영 안에서 찾을 수 있다.
 - b. 요한복음 15 장 4 절과 5 절에 있는 상호 거함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임을 실행하는 것이다.
 - c.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영 안에 있는지, 아니면 자아 안에 있는지를 시험한다.
 - d. 사탄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계 12:11.
 - (1)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유일한 곳은 바로 우리의 영이다.

(2)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 있는지 육체 안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갈 5:16-17.

(3)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지켜질 것이고, 사탄은 우리에게 대해 아무 길도 없을 것이다—요일 5:4, 18-21.

8. 연합된 영은 주님과 하나 된 영이며,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은 영이다—요일 5:11 벵후 1:4.

E. 이렇게 말하는 것, 즉 믿음의 영에 따라 말하는 것은 신신하게 하고, 살리고, 사람들을 강하고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넣어주고, 듣는 이들에게 삼일 하나님을 분배한다.

F. 고린도후서 4 장 13 절은 사도들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한 것이 연합된 영에 의해서였음을 가리킨다—고후 4:10-12.

II. 고린도후서 4 장 13 절의 문맥에 따르면, 그 영에 따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된다—고후 4:10-12.

A.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고후 4:10.

1. ‘예수님을 죽게 한 것, 즉 죽인 것,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통과하셨던 죽음의 일, 십자가의 일을 가리킨다.

2. 우리의 체험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신약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박해나 다름이다.

3. 이것은 질병이나 재난같이 옛 창조물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과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죄들, 실수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징벌, 교정, 혹은 징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4.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우리의 타고난 사람과 걸사람과 육체를 소멸시킴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은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후 4:16.

5.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한다—고후 4:11.

6. 이렇게 매일 죽는 것은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다—빌 3:10-11.

7. ‘예수님의 생활’은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살았던 생활이다—요 11:25.

8.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사람의 생활, 즉 하나님이지만 사람이며 사람이지만 하나님인 생활을 살 수 있다—갈 2:20, 빌 1:19-21 상.

B.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고후 4:11.

1. 4 장 10 절과 11 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칭호는, 사도들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셨던 것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2. 주님의 생활은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 살았던 생활이다. 또한 주님의 생활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하나였고, 그분의 생활이 곧 사역이었던 그러한 생활이었다—요 6:14-15, 12:13, 19, 23-24.

3. ‘육체’와 ‘몸’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을 육체가 타락한 몸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C.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고후 4:12.

1. 우리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된다.

2. 다른 사람들 안으로 생명이 분배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결과이다.

3.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 생명이 활동하도록 죽어야 한다—고후 4:12.